



3<sup>rd</sup> Week, December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Vol. 20

---

#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대통령/비상계엄/탄핵, 평가, 한라산, 상급종합병원, 민생경제
경제·관광	성과, 가치, 가구, 수상, 소상공인
지역·사회	대통령/탄핵/내란, 시청, 유해, 꽃자왈, 차량

※ 분석 기간 : 12월 12일~12월 18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위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 탄핵 심판과 정치권 대립 - 비상계엄의 위헌 논란 - 헌정질서 회복 의지
	평가	- 친환경 골프장 평가 기준 -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 탐방예약제 해제 효과
	한라산	- 한라산 지질조사 보고서 - 한라산 눈꽃버스 개시 - 탐방예약제 해제 모니터링
	상급종합 병원	- 제주권 독립 진료 권역 검토 - 중증 의료 서비스 개선 - 2026년 평가 기준 대비 준비
	민생경제	- 경제 안정화 대책 - 지역 상권 회복 지원 -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1~12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관광공사 사회공헌 특별상 수상</li> <li>- 육종농가 최고가 경매 성과</li> <li>- 꽃자왈 공유화 캠페인 성과</li> </ul>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 생태적 가치 공유화</li> <li>- 스마트 온실운영 시스템의 혁신 가치</li> <li>- 제주관광공사 그린 캠페인의 사회적 가치</li> </ul>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고령자 가구 증가 전망</li> <li>- 육아휴직 감소와 저출생 영향</li> <li>- 가구 형태 변화와 정책적 대응</li> </ul>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해녀의 부업 관광 수상</li> <li>- 육종농가 암소 최고가 낙찰</li> <li>- 체육상 대상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li> </ul>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li> <li>- 상생협력기금 조성</li> <li>- 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li> </ul>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3~14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대통령/ 탄핵/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li> <li>- 내란죄 논란과 비상계엄</li> <li>- 시민들의 집회 참여 확대</li> </ul>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청 앞 대규모 집회</li> <li>- 공공행정과 도민 의견 수렴</li> <li>- 도민 안전 관련 공공 행사</li> </ul>
	유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 유해 봉환식</li> <li>- 멧돼지 출몰 안전 대책</li> <li>- 유증기 폭발 사고 발생</li> </ul>
	꽃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 공유화 캠페인</li> <li>- 환경 교육과 보존 활동</li> <li>-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li> </ul>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li> <li>- 교통사고로 드러난 정비소 과실</li> <li>-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대응</li> </ul>

##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 중국

- ✓ 2025년 경제 정책 방향 설정, 내수 확대와 부동산·주식 시장 안정화가 주요 과제. 재정·통화정책 조정으로 경제 하방 압력 완화 및 민간 투자 촉진, 경제 성장률 목표와 실행 전략 강조
- ✓ 광저우,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지원. 해외 브랜드 확장과 물류 시스템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글로벌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립하려는 목표 추진
- ✓ 중국, 금융 지원으로 노인복지 및 실버 경제 발전 촉진. 다양한 금융 상품과 보험 상품 혁신, 고령자 재산 보호 및 금융 접근성 향상, 노인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개선
- ✓ 중국,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영경제촉진법 제정 추진. 민간 투자 유치와 중점 산업 투자 활성화 목표로 정책 진행, 민영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 ✓ 베이징, 항공·철도·도로 물류 네트워크 강화로 물류비용 절감 추진. 인공지능 및 무인 시스템 활용한 물류 효율성 제고, 국제 물류 허브로 성장하려는 전략 추진
- ✓ 중국,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석탄·석유·가스 비축 확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 가속화, 관련 기술 개발 및 녹색 에너지 대규모 도입 목표 설정
- ✓ 중국 민박 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소비자 맞춤형 경험 제공하는 업체 성장. 퇴출 위기를 겪는 중소 민박업체들, 현지 문화를 반영한 독창적 서비스로 차별화 필요성 증가
- ✓ 중국, 2029년까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공급망 개선을 포함한 현대적 소매 시스템 구축.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상업 혁신과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및 디지털 상점 모델 확대 추진

- ✓ 중앙 경제회의에서 전국 탄소 배출권 시장 확대와 제품 탄소 발자국 관리 체계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거래와 관련된 기술 및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 ✓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 다양한 디지털화 솔루션과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경제 활성화 목표
- ✓ 중국, 친환경 대나무 자원을 활용해 플라스틱 사용 대체하는 산업 확대. 대나무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을 통한 대체재 시장 점유율 확대, 대나무 산업 생태계 구축
- ✓ 베이징, 톈진, 허베이가 AI 산업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 핵심 기술 연구 및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AI 산업 발전 가속화 및 지역 간 융합 촉진

## ○ 필리핀

- ✓ 필리핀, EU로부터 기후 완화 및 적응 이니셔티브 강화 지원금 1,070만 유로 받음. 녹색 에너지 전환과 취약 지역사회 지원을 목표로 하며, 연평균 4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 기대
- ✓ 필리핀,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EU와 FTA 협상 재개 및 칠레와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시작. 디지털 경제 및 환경 등 다양한 부문 협정 논의
- ✓ 일본, 필리핀 해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16억 엔 지원. 강제 팽창형 선박, 레이더 시스템 등 첨단 장비 제공. 남중국해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 및 평화 증진 기여

## ○ 태국

- ✓ 태국-독일, 철도 운송 협력 파트너십 2년 연장,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 강화. 독일은 태국의 철도 인프라 개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며, 탄소 배출 감축 및 지속 가능성 확대 추진

## ○ 베트남

- ✓ 베트남, UN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통해 우크라이나, 시리아, 자연재난 피해국 지원. 국제적 기여 확대 및 글로벌 인도주의 지원 강화를 위해 CERF 기여 확대 계획
- ✓ 베트남, 2025년까지 수출 성장률 6% 목표. 자유무역협정(FTA) 이점 활용과 수출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및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 설정

##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한국 경제특구 설립 방안 논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발전 도모, 양국 간 경제 및 문화적 유대 확대 목표로 협력 계획
- ✓ 캄보디아, 보건 분야의 인프라 강화 및 인력 개발 등 주요 우선 과제 설정. 보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강화하며, 시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 목표 설정

## ○ 라오스

- ✓ 라오스, 중국·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실조 완화. 150만 달러 규모 파트너십 체결, 아동보호 인프라 개선과 기아 완화 및 건강 증진 목표로 진행
- ✓ 라오스, 수입 감소 및 국내 생산력 증대 목표로 정책 추진. 수입 대체 산업과 현지 생산 강화, 기업 지원 및 경쟁력 있는 국내 제품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도입

##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 투자 확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의향서를 제출, 신재생에너지, 통신 및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무역 및 투자 관계 증진 목표

- ✓ 말레이시아, 여성 기업가 성장 지원을 위한 기술 투자 확대. 여성 소유 기업 CG글로벌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성 평등 및 여성 기업가 육성 목표와 기술 기반 경제 성장을 지원

## ○ 일본

- ✓ 가와사키시, 간호·요양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 및 실습 프로그램 확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간호사 양성 및 요양 인재 확충 목표로 지역 내 협력 추진
- ✓ 아이치현 다하라시, 서퍼 도시 조성으로 젊은 인구 유입 유도. 주택 및 생활 인프라 정비, 서핑 관련 시설 도입 및 아시안 게임을 통한 지역 홍보와 서퍼 인구 유입 촉진
- ✓ 오카야마현, 결혼 지원 및 인구 감소 대응 위한 결혼 지원 시스템 운영. 철도와 버스 공공 교통 인프라 강조 및 자율주행 기술 도입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 및 경제 활성화 추진
- ✓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 물류 도로 계획으로 물류 위기 해결 목표. 고속도로에 자동 물류 도로 설치, 화물 무인 운송 및 저탄소 기술 도입을 통한 물류 효율성 제고
- ✓ 가가와 대학, 지역 연계로 모바 조성 및 해양 생태계 복원 추진. 인공 어초 설치 및 해양 자원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로 지역 주민과 협력하며 생물 다양성 유지 추진
- ✓ 오카야마현, 커피 찌꺼기와 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 확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식품 제조와 페트병 재활용 공장 가동, 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 동시에 추진
- ✓ 시가현, 호수를 가진 지자체 연대 통해 관광 자원 개발. 비와코 잠재력 활용해 관광 및 환경 보존 분야 협력,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호수 주변 지역 활성화 및 생태관광 개발 추진



- ✓ 외국인 밀집 도시회의, 다문화 공생을 위한 정책 논의 심화. 언어 지원, 교육, 고용 개선 등 다문화 사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지방 정부와 기업의 연계 강화
- ✓ 나가노현 스자카시, 페트병 재활용 사업 추진. 수평 재활용 사업을 통해 약 50톤 페트병 재활용,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환경 교육 포함
- ✓ 야마나시-시즈오카현, 후지 신경제권으로 수소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 수소 에너지 보급 및 스타트업 지원 협력, 글로벌 기술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 ✓ 홋카이도, 숙박세 도입 확정 및 조례 성립. 호텔·여관 숙박자 대상 숙박세 도입, 수익은 관광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개발에 활용, 세율 조정 협의 중
- ✓ 에히메현, 농업 탄소 크레딧 거래 협력 체결. 농업 분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크레딧 판매, 메탄 배출 감소 및 바이오차 사용으로 CO2 흡수·저장 추진
- ✓ 오사카 가스, AI 기반 외식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기상 데이터 활용해 외식업체의 고객 방문 수 예측, 음식물 쓰레기 감소 및 공급망 효율성 강화
- ✓ 홋카이도, 국가 전략 특구 계획안 통해 규제 완화 추진. 외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기업 투자 제한 완화 계획



## Contents

---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12월 12일~12월 18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867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337건, 경제·관광 분야 168건, 지역·사회 분야 362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337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대통령/비상계엄/탄핵, 평가, 한라산, 상급종합병원, 민생경제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핵 심판과 정치권 대립</li> <li>·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작, 여야 간 법적·정치적 공방 지속</li> <li>·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강력 비판</li> <li>- 비상계엄의 위헌 논란</li> <li>·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법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li> </ul>
-------	---------------------	---

정치·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과 경찰 지휘부 구속 등 사법부의 강력한 대응 진행 중</li> <li>- <b>헌정질서 회복 의지</b></li> <li>·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의지 강조</li> <li>·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가 향후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 예정</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친환경 골프장 평가 기준</b></li> <li>· 농약 사용 감소 및 친환경 운영 골프장을 대상으로 연간 평가 진행</li> <li>· 반기별 점검으로 환경 보전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li> <li>- <b>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b></li> <li>· 제주를 독립 진료 권역으로 설정하려는 보건복지부 용역 결과 검토</li> <li>· 지역 의료환경 개선과 병원 지정 가능성에 대한 논의 지속</li> <li>- <b>탐방예약제 해제 효과</b></li> <li>· 한라산 탐방예약제 해제로 탐방객 증가에도 자연 훼손이 미미</li> <li>· 쓰레기 감소 등 탐방객의 환경 인식 개선이 확인됨</li> </ul>
	한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한라산 지질조사 보고서</b></li> <li>· 화산지질학 연구와 지역 관리 계획을 담은 보고서가 20년 만에 발간</li> <li>· 화산 활동 및 지질도 작성이 학문적·실용적으로 기여할 전망</li> <li>- <b>한라산 눈꽃버스 개시</b></li> <li>· 겨울철 한라산 설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시작</li> <li>· 교통 편의성과 탐방로 접근성을 높이며 관광 활성화 기대</li> <li>- <b>탐방예약제 해제 모니터링</b></li> <li>· 탐방예약제 해제 이후 환경 훼손이 미미하다는 결과가 발표</li> <li>· 탐방객 증가에도 쓰레기 감소 등 긍정적 변화가 확인</li> </ul>
	상급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권 독립 진료 권역 검토</b></li> <li>· 정부의 제주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 검토 지속</li> <li>·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 의료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정</li> <li>- <b>중증 의료 서비스 개선</b></li> <li>· 제주지역 주민들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로 이동하는 문제 부각</li> <li>·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li> <li>- <b>2026년 평가 기준 대비 준비</b></li> <li>· 정부와 제주도의 협력으로 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 지속</li> <li>· 의료진·시설 확충 등 종합적 지원 방안 논의 중</li> <li>·</li> </ul>
	민생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경제 안정화 대책</b></li> <li>· 탄핵 사태 여파로 민생경제 위축 우려</li> <li>· 제주도는 조기 추경 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섬</li> <li>- <b>지역 상권 회복 지원</b></li> <li>·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를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li> <li>· 소비 진작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 시도</li> <li>- <b>농수산업 경쟁력 강화</b></li> <li>· 제주 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 논의</li> <li>·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 확대와 혁신 방안 추진</li> </ul>

- 168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성과, 가치, 가구, 수상, 소상공인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경제·관광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관광공사 사회공헌 특별상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관광공사가 5년 연속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li> <li>·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 수상으로 사회적 가치 인정 취득</li> </ul> </li> <li>- 육종농가 최고가 경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성목장 대표, 경매 최고가 암소 2마리 출품으로 주목</li> <li>· 우수 한우 육종 노력이 높은 평가와 성과로 이어지는 실정</li> </ul> </li> <li>- 꽃자왈 공유화 캠페인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 공유화 캠페인 통해 1억3800만 원의 후원금 조성</li> <li>· 꽃자왈 사유지 매입 및 생태 보전 활동으로 지역 가치를 높이는 실정</li> </ul> </li> </ul>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 생태적 가치 공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자왈 공유화 활동으로 생태계 보전과 탄소 흡수 효과 기대</li> <li>· 기업·개인 후원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지속가능성 강화</li> </ul> </li> <li>- 스마트 온실운영 시스템의 혁신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실 원격 제어 시스템 개발로 농업 효율성 증대</li> <li>·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부문 판로 확대 기대</li> </ul> </li> <li>- 제주관광공사 그린 캠페인의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정화 활동으로 연간 8톤 이상의 쓰레기 수거 성과</li> <li>· 자원순환 모델 제시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기여</li> </ul> </li> </ul>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고령자 가구 증가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52년 고령자 가구 비율 51.7%로, 고령화 가속화 예상</li> </ul> </li> </ul>

경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 및 2인 가구 비중이 전체의 75%를 차지할 전망</li> <li>- <b>육아휴직 감소와 저출생 영향</b></li> <li>· 제주 육아휴직자 3004명, 전년 대비 11.3% 감소</li> <li>· 저출생과 연령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li> <li>- <b>가구 형태 변화와 정책적 대응</b></li> <li>· 평균 가구원수 감소로 2052년 1.87명까지 줄어듦 전망</li> <li>· 4인 이상 가구 감소로 가족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대두</li> </ul>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 해녀의 부업 관광 수상</b></li> <li>· 융합 콘텐츠로 '한국관광의 별' 선정, 지역 문화 홍보 강화</li> <li>· 해녀 문화와 음식, 연극 결합으로 관광 콘텐츠 가치 인정</li> <li>- <b>육종농가 암소 최고가 낙찰</b></li> <li>· 서성목장의 암소가 경매 최고가 기록하며 농업 가치 재조명</li> <li>· 농업 발전과 한우 품질 개선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취득</li> <li>- <b>체육상 대상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b></li> <li>· 사격 선수 오예진, 체육상 대상 수상으로 제주의 명예 높이는 실정</li> <li>· 금메달 및 대회 신기록으로 국제적 위상 강화</li> <li>·</li> </ul>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저신용 소상공인 지원</b></li> <li>· 이차보전금 지원 연장으로 약 3000명 혜택 예상</li> <li>·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li> <li>- <b>상생협력기금 조성</b></li> <li>· 100억 원 규모의 협력기금으로 147개 소상공인 금리 감면</li> <li>·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 강화</li> <li>- <b>공공조달 혁신제품 지정</b></li> <li>· 혁신제품 판로 지원으로 소상공인 기술 사업화 기대</li> <li>·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업 성장 지원 역할 강조</li> </ul>



- 362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대통령/탄핵/내란, 시청, 유해, 꽃자왈, 차량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b>대통령/ 탄핵/내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li> <li>·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제주시청 앞에서 도민 환호</li> <li>· 헌법재판소 심리를 앞두고 시민단체와 도민들 추가 집회 예고</li> <li>- 내란죄 논란과 비상계엄</li> <li>·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내란 행위로 규정, 시민사회 강력 비판</li> <li>·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 여론 확대</li> <li>- 시민들의 집회 참여 확대</li> <li>· 제주시청 집회에 도민 1만여 명 참여, 역사적 순간 목격</li> <li>· 탄핵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 활동 예상</li> </ul>
<p><b>지역·사회</b></p>	<p><b>시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청 앞 대규모 집회</li> <li>· 제주시청 앞 도민대회에 시민 수천 명 모여 윤석열 퇴진 촉구</li> <li>· 집회와 행진에서 다양한 퍼포먼스와 발언 이어지는 실정</li> <li>- 공공행정과 도민 의견 수렴</li> <li>· 제주시청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li> <li>· 주민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행정 운영 방안 모색</li> <li>- 도민 안전 관련 공공 행사</li> <li>· 제주시청 인근에서 재난 대비 안전 교육 프로그램 진행</li> <li>· 지역사회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 시행</li> </ul>

지역·사회	유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4·3 유해 봉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3 희생자 유해가 7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품에 안김</li> <li>· DNA 대조로 신원 확인, 추가 유해 발굴 작업 지속</li> </ul> </li> <li>- 멧돼지 출몰 안전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에서 멧돼지 출몰로 탐방객 고립</li> <li>· 탐방로 안전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 필요성 강조</li> </ul> </li> <li>- 유증기 폭발 사고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업 중 유증기 폭발로 50대 남성 사망, 안전 관리 중요성 부각</li> <li>· 소방당국과 경찰이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책 논의</li> </ul> </li> </ul>
	곶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곶자왈 공유화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 보전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곶자왈 관리 방안 제시</li> <li>· 주민 참여와 후원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계획</li> </ul> </li> <li>- 환경 교육과 보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곶자왈에서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지역 생태 가치를 알리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 진행</li> </ul> </li> <li>-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곶자왈을 활용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 경제 기여</li> <li>· 탐방객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병행</li> </ul> </li> </ul>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페로 돌진한 차량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대 운전자가 제주시 카페로 차량 돌진, 유리창 파손</li> <li>·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도로 안전 관리 필요성 부각</li> </ul> </li> <li>- 교통사고로 드러난 정비소 과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 소홀로 차량 바퀴 빠짐 사고 발생, 보행자 부상</li> <li>· 정비소 관리 강화와 사고 예방 대책 필요성 제기</li> </ul> </li> <li>-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li> <li>· 경찰, 음주운전 재범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 강조</li> </ul> </li> </ul>



##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경제회의, 2025년 경제 정책과 주요 과제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경제회의에서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내수 확대, 부동산·주식 시장 안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균형 조정도 논의</li> <li>- 초과적 정책 조정 및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제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민간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추진함. 또한, 경제 성장률 목표와 세부 실행 전략을 강조</li> <li>- 내수 확대와 소비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 기조와, 중·장기적으로 신도시 개발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 방안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구조 개혁을 제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저우, 24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저우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자상거래 성장을 위해 산업단지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며,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 현황을 분석한 가이드를 발표함. 해당 가이드는 국가별 기회와 도전을 명시</li> <li>- 대회에서는 디지털 전환과 해외 브랜드 확장을 위한 다수의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산업단지 및 물류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함. 이로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중국식 노인복지 및 실버 경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당국이 금융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및 실버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강조함. 재정 및 보험상품 설계도 포함</li> <li>- 상업 보험과 연금상품 혁신, 투자관리 강화 및 금융 사기 방지 등 노인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개선하며, 고령자들의 재산 보호와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li> </ul> </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중국

### ○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조속한 입법 추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영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 민영경제촉진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함. 이는 민간 투자 유치의 근거 마련을 목표로 설정
- 2025년을 목표로 대규모 설비 교체와 소비품 교체를 촉진하며, 중점 산업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민영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

### ○ 베이징, 사회 물류비용 절감 정책 발표

- 베이징시가 항공, 철도, 도로를 포함한 물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물류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발표함. 이를 통해 국제 물류 허브로 성장하려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
- 첨단 기술과 디지털화 추진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및 무인 시스템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확대를 계획함. 물류 산업의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촉진

### ○ 중국, 2025년 에너지 보장 능력 강화

- 중국은 2025년까지 에너지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하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석탄, 석유, 가스의 비축 및 생산을 확대할 계획임. 에너지 안보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
-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며,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함. 녹색 에너지의 대규모 도입과 효율성 향상이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 실정

### ○ 민박 산업, 고부가가치 경쟁 시대 진입

- 중국 민박 산업이 경쟁 심화와 고객 수요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서비스와 부가가치 제공이 핵심 과제로 대두됨. 기존의 단순 숙박 개념을 넘어서는 발전 필요성이 제기
- 일부 중소 민박업체는 퇴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특화된 부가가치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b>중국</b>	<p>서비스와 소비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는 업체가 성장세를 보임. 특히, 현지 문화를 반영한 독창적인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실정</p>
	<p>○ <b>중국, 현대화된 소매 시스템 구축 목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가 2029년까지 디지털화, 저탄소화, 공급망 개선을 포함한 현대적 소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함. 디지털 기술 도입을 통한 상업 혁신이 주요 과제로 설정</li> <li>- 품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디지털 상점 모델 도입을 확대함.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li> </ul>
	<p>○ <b>중국, 전국 탄소 시장 확대 가속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경제회의에서 전국 탄소 배출권 시장 확대와 함께 제품 탄소 발자국 관리 체계 및 인증 시스템 구축을 강조함.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li> <li>- 탄소 거래와 관련된 기술 및 데이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도입을 촉진함. 이는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li> </ul>
	<p>○ <b>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100개 도시에서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기술 및 자원 지원을 강화함. 디지털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li> <li>- 소규모 기업부터 첨단 기술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화 솔루션과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함. 중앙 및 지방 정부의 협력이 중요 과제로 언급</li> </ul>
	<p>○ <b>중국, ‘대나무 대체 플라스틱’ 산업 확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이 친환경 대나무 자원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대체하는 산업을 확대하며,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에 집중함. 대나무 제품의 경쟁력 강화가 주요 목표로 설정</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나무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통해 대체재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대나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京津冀(징진지), AI 산업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이징, 톈진, 허베이가 AI 산업 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개발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있음. 이는 지역 간 융합 발전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li> <li>- 핵심 기술 연구 및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며, 지역 간 융합을 촉진함. 특히 AI 응용기술 확산과 협력 모델 개발이 강조</li> </ul> </li> </ul>
필리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 EU 추가 지원으로 기후 프로젝트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은 EU로부터 약 1,070만 유로(160억 원)를 추가 지원받아 기후 완화 및 적응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예정임.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 가스 플랜트 건설을 포함한 '이사벨라 프로젝트'에 사용될 계획</li> <li>- 네덜란드, 싱가포르, 필리핀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녹색 에너지 전환과 취약 지역사회 지원을 목표로 함. 연평균 4만 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 효과도 기대</li> <li>- CI2 펀드는 이번 지원으로 총 8억 8,500만 달러 규모로 확대 되었으며, 2025년까지 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남아프리카, 태국, 베트남 등 19개 프로젝트를 지원</li> </ul> </li> <li>○ 필리핀, 무역 다변화와 FTA 협상 재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리핀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며, 이는 국가 개발계획에 부합하고 산업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예정</li> <li>-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은 2025년 2월 재개될 예정이며, 필리핀은 현재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를 통해 EU 시장 접근성을 강화</li> <li>- 필리핀은 또한 칠레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시작하며, 디지털 - 경제,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한 협정을 논의할 계획</p> <p>○ <b>일본, 필리핀 해군 역량 증진 위해 16억 엔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은 필리핀 해군의 역량 강화를 위해 약 16억 엔(150억 원)을 지원하며, 강제 팽창형 선박, 레이더 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제공할 예정임. 이는 일본의 지역 안보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li> <li>- 일본은 과거에도 필리핀에 6억 엔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지원은 남중국해의 안보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 전망</li> <li>- 필리핀은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해양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확대</li> </ul>
태국	<p>○ <b>태국-독일, 철도 운송 협력으로 지속 가능성 추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과 독일은 철도 운송 파트너십을 2년 연장하며,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임. 독일은 태국의 철도 인프라 개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li> <li>- 독일-태국 철도 협회(GTRA)는 양국 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와 자원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li> <li>- 독일은 태국의 블루라인 전철, 공항철도 등 프로젝트에 기여하며, 태국의 철도 운송 내 탄소 배출량 감축 및 지속 가능성 확대에 기여</li> </ul>
베트남	<p>○ <b>베트남, CERF 활용으로 국제 인도주의 지원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은 UN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각 50만 달러, 자연재난 피해국에는 2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인도주의적 역할을 확대</li> <li>- 유엔 사무총장은 CERF가 20년 동안 9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글로벌 인도주의 지원을 주도했다고 평가함. 베트남도 CERF를 활용해 국제적 역할을 강화</li> <li>- 국제사회는 CERF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며 2025년까지 3억 5,0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밝히며 협력을 강화</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2025년까지 수출 성장률 6%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은 글로벌 시장 회복을 기반으로 2025년 수출 성장률 목표를 6%로 설정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이점 활용과 국경 무역 가속화 등 전략을 지속할 계획</li> <li>- 2024년 첫 11개월 동안 베트남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4.4% 증가해 3,69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와 일치</li> <li>- 베트남은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 및 무역진흥회의 개최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 계획</li> </ul> </li> </ul>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한국 경제특구 설립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는 한국 경제특구(SEZ) 설립을 위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할 계획</li> <li>-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내 숙련 인력을 양성하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li> <li>- 한국 기업은 캄보디아의 투자 환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양국 간 경제 및 문화적 유대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보건 분야 발전 위한 주요 우선순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캄보디아 총리는 보건 분야의 인프라 강화, 장비 현대화, 의약품 보장, 인력 개발 등 4대 우선 과제를 제시하며, 시민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설정</li> <li>- 정부는 병원 및 보건소의 현대적 장비 도입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건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을 추진</li> <li>- 캄보디아는 건강형평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윤리적 의료 관행 강화를 위해 노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스, 아동 건강 증진 위해 중국·유니세프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스는 중국 및 유니세프와 협력하여 약 150만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 아동 영양실조 완화 및 건강 증진에 나섬. 전국적</li> </ul> </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라오스	<p>으로 약 22만 1,000여 명의 아동과 가족 지원을 목표로 설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은 즉석 치료식품(RUTF) 및 필수 의료 키트를 제공하고, 라오스 보건 인력 교육과 병원 의료 장비 지원을 통해 아동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li> <li>- 이번 이니셔티브는 특히 취약 지역인 풍살리, 아타푸 등을 중심으로 기아 완화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전국 기숙학교 및 아동보호 인프라 개선을 계획</li> </ul>
	<p>○ 라오스, 수입 감소 위한 국내 생산 확대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오스 정부는 국내 생산력 증대와 수입 감소를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입 대체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현지 생산을 강화할 계획</li> <li>- 산업통상부는 기업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생산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발표하며, 경쟁력 있는 국내 제품 육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li> <li>- 정부는 무역 및 투자 환경 개선, 생산 비용 절감, 국내외 투자 유치 강화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국내 산업 기반 강화를 추진할 방침</li> </ul>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에 투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기업 25곳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누산타라에 대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며, 에너지, 도시 개발, 제조업,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계획을 제시</li> <li>- 이번 투자 참여로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가 더욱 증진될 전망이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내 주요 교역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li> <li>- 누산타라는 약 3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며, 신재생 에너지와 통신, 교통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투자 확대를 계획</li> </ul>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말레이시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기술 투자로 여성 기업가 성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말레이시아 총리는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현지 기업과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강조함. 여성 소유 기업 CG 글로벌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여성 기업가 양성의 중요성을 부각</li> <li>- CG글로벌은 100%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며, 특히 80%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성장 모델은 아세안 지역의 성 평등 및 여성 기업가 육성 목표와 부합</li> <li>-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성 평등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여성 기업가의 기회 확대와 기술 기반 경제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일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와사키시, 간호·요양 인재 육성 위한 대학원 설립 및 고등학생 실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와사키시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요양 인재 육성에 주력하며, 2025년 4월 간호대학 대학원을 설립하고 지역 고등학교에서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임. 이는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 인구와 부족한 간호·요양 인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li> <li>- 새로 설립될 대학원에서는 고급 실무 간호 과정을 통해 지역의 포괄적 케어를 담당할 전문 간호사를 양성하며, 주중 야간 및 주말 강의를 통해 현업 종사자들이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li> <li>-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고령자와의 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간호와 요양의 필요성을 체험하며, 미래 요양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li> </ul> </li> <li>○ 아이치현 다하라시, 서퍼 도시 조성으로 젊은 인구 유입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치현 다하라시는 서퍼 도시 이미지를 통해 젊은 층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과 생활 인프라를 정비하며, 서핑 후 샤워 시설 등 서퍼 맞춤형 설계를 도입</li> </ul> </li> </ul>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주택은 캘리포니아 스타일로 통일하며, 백색 외벽과 꽃무늬 블록 장식을 사용해 세련된 유럽풍 이미지를 강조함. 주민 전용 공원과 서핑 관련 시설도 추가적으로 계획
- 다하라시는 2026년 아시안 게임에서 서핑 경기를 개최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 홍보와 서퍼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

#### ○ 오카야마현, 저출산 대책으로 결혼 지원 및 인구 감소 대응

- 오카야마현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 지원 시스템 '오카야마 인연맺기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
- 철도와 버스 등 공공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율주행 기술 도입 등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
-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오카야마현은 지방 분권적 경제 모델 구축을 통해 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 문제를 동시에 해결 계획

#### ○ 일본 국토교통성, 자동 물류 도로 계획으로 물류 위기 해결 목표

- 일본 국토교통성은 물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쿄-오사카 간 고속도로에 자동 물류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
- 이 시스템은 화물을 무인 운송 카트를 활용해 운송하며, 낮은 환경 오염과 높은 효율성을 목표로 함. 첫 시범 구간은 2027년까지 완공 예정
- 물류 도로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재난 대응과 저탄소 기술 도입을 목표로 하며, 스위스와 영국의 사례를 참고한 글로벌 표준화를 검토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가가와 대학, 지역 연계로 모바 조성 및 해양 생태계 복원 추진**
  - 가가와 대학은 지역 기업 및 어업 관계자와 협력하여 인공 어초를 설치,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모바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생물 다양성 유지와 탈탄소 사회 실현에도 기여
  - 설계된 인공 어초는 해조류 성장을 촉진하며, 지역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함. 현재까지 약 60개 이상의 어초를 설치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실정
  - 가가와 대학의 이러한 활동은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내 다른 지역으로 확장 가능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
- **오카야마현, 순환경제 선도 사례로 커피 찌꺼기와 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 확대**
  - 오카야마현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폐 페트병을 원료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을 시도
  - 대표적인 사례로, 커피 찌꺼기에 누룩균을 첨가하여 건강식 빵으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연간 2만 5천 톤의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공장도 가동
  - 지역 주민들과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 보존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역 내 국제 예술제 개최로 관광 활성화도 도모
- **시가현, 호수를 가진 지자체 연대 통해 관광 자원 개발 모색**
  - 시가현은 세계 최대 담수호인 비와코의 잠재력을 활용해 관광 및 환경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협력 플랫폼 구축을 검토
  - 세계 호수의 날 제정을 기념해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관광, 환경, 경제적 관점에서 호수의 가치를 재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
  - 지역 내 5개 현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호수 주변 지역 활성화 및 생태관광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외국인 밀집 도시회의, 다문화 공생을 위한 정책 논의 심화**
  - 일본 내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 밀집 도시회의는 언어 지원과 교육, 고용 개선을 주요 의제로 삼아 다문화 공생 방안을 논의
  - 기업과 행정 간 협력을 통해 일본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
  - 지방 정부와 기업들이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다문화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공동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 **나가노현 스자카시, 2025년부터 폐트병 재활용 사업 추진**
  - 나가노현 스자카시는 2025년부터 사용된 폐트병을 재활용해 새로운 폐트병을 제조하는 수평 재활용 사업을 시작하며, 연간 약 50톤의 폐트병을 처리할 계획
  -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도 포함되며, 재활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해당 사업은 국내에서 이뤄지며,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야마나시시즈오카현, '후지 신경제권'으로 수소 및 스타트업 협력 강화**
  -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은 후지산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권 구상을 발표하며, 수소 에너지 보급과 스타트업 지원을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
  - 양 지역은 의료 기기, 환경 기술 등 기존 협력 범위를 확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 수소 기술 단체와 협력해 글로벌 기술 연계를 추진
  - 행정의 기존 틀을 넘어선 새로운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

## 지역

## 제목 및 주요 내용

### 일본

#### ○ 에히메현, 농업 탄소 크레딧 거래 협력 협정 체결

- 에히메현은 두 은행 및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 감소를 촉진하고, 크레딧 판매를 통해 농업인에게 추가 수익을 제공할 계획
- 주요 대상 농법은 메탄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한 논 물관리 개선과 바이오차 사용으로 CO2를 흡수 및 저장하는 방식
- 이 협력은 탄소 중립을 위한 지역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및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오사카 가스, AI 기반 외식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 오사카 가스는 AI와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외식업체의 고객 방문수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인력 배치를 최적화하려는 목적
- 외식업체의 과거 매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상 조건과 요일별 방문 추이를 반영한 예측을 제공하며, 공급망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
- 이러한 예측 기술은 대형 건설 프로젝트 및 철도 운영과 같은 타 산업에도 응용 가능성을 넓히며,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도 높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정

#### ○ 홋카이도, 국가 전략 특구 계획안 통해 규제 완화 추진

- 홋카이도는 2025년부터 영어로 회사 설립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전략 특구 계획안을 발표하며, 외국 기업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
- 지역 은행들이 참여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기업 투자 제한 완화와 고용 상담 센터 설립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
- 이 계획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외국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후 관련 규제 완화 및 사업 모델 구체화가 이루어질 계획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